

거진어촌계 풍어제 개최

이달 27~30일 ... 김정길 전 장관 명예대회장

야외 어구어업 전시관 운영...어망 뜨기 등 체험

거진어촌계(계장 백용기)는 오는 27일부터 30일까지 4일간 거진항 일원에서 고성지역 어업인 화합의 장(풍어제) 행사를 개최한다.

어업인의 안위와 건강을 받고, 풍어를 기원하며 고성지역 어업인의 화합을 위해 마련된 이번 행사

에는 김정길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명예대회장으로 참석하고 강원도 정부부지사 등 도단위 기관장들도 참석할 예정이다.

27일 오전 11시 개막식을 시작으로 30일까지 4일간 풍어제와 무형문화재 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

가 열리고 다양한 볼거리와 먹거리, 선물 등이 제공돼 관광객과 지역 주민들의 한마당 잔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행사내용으로 야외 어구어업 전시관 운영, 어망 뜨기, 전통그물짜기, 나잠어업 체험, 바다낚시 체험, 풍어제 굿, 용왕 굿 등이 펼쳐질 예정이다.

원광연 기자

고성명태 지리적표시제 등록 추진

지난 20일 사업설명회 개최 ... 8월중 신청법인 설립 완료

고성군은 지역의 중요 수산특산품인 '고성명태'의 명품화·차별화를 위해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고성군은 지난 20일 생산자와 소비자를 보호함은 물론 어가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목적으로 지리적표시제를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리적표시제 등록이 성사되면

고성지역의 지리적 특성에 기인된 우수한 품질 특성을 정부가 인정하고, '명칭도용' 등의 불법행위에서 보호받도록 제도적 장치를 만들게 된다. 또 원료 조달, 가공, 판매 등 전 과정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로 소비자 인식에 높은 신뢰를 확보할 수 있게 된다.

고성군은 이에 따라 지난 15일 사업계획을 수립 하고 법인 신청

서류준비 등을 완료했다.

또 지난 20일에는 관련 주민들을 대상으로 군청상황실에서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사업설명회를 열었다.

군은 법인 설립 발기인 선출 및 신청서를 제출해 8월경 지리적표시제 등록을 위한 신청법인 설립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박승근 기자

독자제보 ☎681-1666 / 구독신청 ☎681-1667
편집국 이메일 goseongnews@hanmail.net

냉해로 꽃 적어 방문객 감소

제4회 고성 라벤더축제 결과 평가회 ... 문제점 보완 제5회 축제 반영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23일간 간성을 어천리 하늬라벤더팜에서 열린 제4회 강원 고성 라벤더 축제는 냉해로 꽃이 제대로 피지 않았으나, 전국에서

약 5천여명이 찾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고성 라벤더축제위원회(대표 오정은)는 지난 21일 간성을 어천리 꽃나라팜에서 작목반과

고성군 농업기술센터 관계자 등 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4회 강원고성 라벤더축제 결과 평가회 및 특화사업 추진협의회를 가졌다.

이날 열린 평가회에서는 지난 6월 25일부터 7월 17일까지 23일간 예년에 비해 30%가 줄어든 5천명이 방문했으며, 지역별로는 고성군 15%, 속초 25%, 기타 60%인 것으로 집계됐다고 설명했다.

작목반 하덕호 대표는 "올해는 전국적으로 장마가 길어지고 우리 지역에도 냉해 등 이상저온 현상으로 라벤더 꽃이 많이 피지 않아 예년에 피해 방문객 수가

30%정도 감소했다"며 "축제전에 사과문을 통해 양해를 미리 구했다"고 했다.

또 "기상여건이 좋지 않은 것에 비해서 방문객의 비율이 늘어나고 있고, 충남·정선 등지의 지자체에서도 찾아오는 등 소기의 성과가 있었다고 판단한다"며 "라벤더의 재배가 잘 이뤄진다면 전국에서 선두주자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오정은 축제위원장은 "여러가지 문제점을 분석해 보완 개선하고 제5회 축제에 반영하겠다"며 "현재 비누, 향수, 방향제 등 제조업을 통해 판로의 다각화를 추

진하고 있고, 앞으로 작목반과 함께 농촌테마마을을 조성 등 전국최고의 라벤더 관광지로서의 도약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또한 "작목반과 지역주민, 행정 이 혼연일체가 돼 심심어린 충고, 지속적인 관심, 성공을 향한 긍정적인 마인드를 형성해 가는 풍토가 조성돼야 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고성군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한두번의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쉽게 포기하는 사업자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며 "주인의식을 갖고 다함께 힘을 합쳐 신념을 갖고 극복해 나가야 한다"고 했다.

원광연 기자

개업집

현내면 C&T 다이망 카페·펜션

마차진 바다 내려다보며 커피한잔



C&T 다이망 김창희 대표.

지난 7일 현내면 금강산콘도 건너편 마차진 해변이 한눈에 보이는 곳에 C&T 다이망 카페·펜션이 개업했다.

C&T다이망은 Change&Try 다이망(불어; 다이아몬드)으로 친자매이며 공동대표인 김창희씨(52세)와 김태희씨(51세)의 이름 이니셜을 붙여 만들었다. 끊임없이 변화와 도전을 시도하고 다이아몬드처럼 강하고 영원히 변치 않는다는 속뜻을 지니고 있다.

1층은 카페로 사용하고 2층과 3층은 10개동 펜션으로 운영하고 있다. 카페는 50평규모에 7개 테이블과 1개의 대형테이블로 구성돼 있으며, 화이트톤의 천장과 벽사이로 고급목재가 어우러져 고성지역에서 보기 어려운 세련된 분위기를 연출하고 있다.

특히 이집은 신선하고 갓 볶아낸 최상등급의 커피원료만을 사용하고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으며, 실내 인테리어는 서울 신촌 흥대앞 고급 커피전문점을 그대로 옮겨놓은 듯하다.

C&T 다이망 김창희 대표는 "카페운영을 통해 숙박업, 자영업 등을 하고 있는 주민들과 잦은 교류와 대화를 펼쳐나가겠다"며 "관광객에게 체험관광 등의 패키지 여행상품을 만들어 오래 체류할 관광지, 다시 찾는 관광지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아메리카노, 카푸치노, 카라멜 마끼아또 등의 커피류와 팔빙수, 냉커피, 녹차, 찹쌀파이, 샌드위치 등이 제공된다. 식사류는 팔보채정식만이 마련돼 있으며 예약시에만 가능하다. 가격은 3천원~4천5백원선이고 팔보채정식은 1만5천원이다.

영업시간은 오전 11시부터 밤 10시까지이고, 일요일은 오후2시부터 밤 10시까지이다. (681-4777)

원광연 기자



지난 21일 간성을 어천리 꽃나라팜에서 제4회 고성 라벤더축제 결과 평가회 및 특화사업 추진협의회가 열렸다.